

“모든 정물화는 죽음과 이마를 맞대고 있다.” 곰브리치의 말이다. 죽음? 그렇다면 꽃 정물에서 눈부신 때깔을 뽐내는 오만가지 꽃들은 죽음의 제단에 바쳐진 무덤꽃이란 말인가? 그렇다. 풍성한 식탁을 향기롭게 하는 과일과 포도주는 죽음의 입맞춤을 예고하는 음산한 지표로 읽어야 할까? 그렇다. 덧없음의 비유는 정물화의 영도에서 견딜 수 없는 유혹의 향기를 빚대어서 그려지게 마련이었다. 아름다움의 은성한 극한에서 아름다움의 완전한 부재를 상상하는 사교의 비약은 하늘 끝까지 닿으려 했던 바벨탑의 와해가 남긴 허무의 교훈이기도 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두 권의 책

클라츠의 정물에는 두 권의 책이 등장한다. 새 책과 낡은 책, 펼쳐둔 책과 덮어둔 책, 세워 놓은 책과 가로 누운 책의 은밀한 비유는 회화의 전통에서 낯설지 않다. 턱뼈가 달아난 해골이 책을 누른다. 해골은 아무개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다. 죽음이 책을 이겼다. 학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죽음다운 죽음으로 증명하려는 것일까? 해골의 무심한 시선은 빛의 향배를 뒤쫓는다. 누구일까, 자신의 서재 탁자 위에 어두운 죽음의 빛나는 이미지를 올려 둔 사람은? 자신의 미래, 곧 삶의 부재에 관한 생생한 표상은 죽음의 시선에 의해 완성됐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정물화는 예술가의 정신적 자화상이기도 하다.

높직한 촛대에 비스듬히 기울어진 몽당양초가 흰 연무를 날린다. 불씨가 희미하게 사그라드는 순간이 화가의 예민한 시선에 포착됐다. 자신의 더운 열정을 녹여서 빛을 밝히는 초의 한 자루 일생이 기어어 마감됐다. 촛불을 불어서 끈 것은 열린 책의 갈피를 뒤적이는 바람의 손이었을까? 오간 데 없는 바람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뒤적이는 짧은 열정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술잔이 비었다. 시간이 다 되었다. 촛불이 꺼졌다. 인간은 말이 없다.”
피터 클라츠, 바니타스 정물화,
1630~1640년, 33×41.5cm

화가가 자신의 두 손가락으로 심지를 눌렀을 수도 있다. 밤을 도와 자신의 먼 내일을 묵상하다가 문득 창 틈으로 비쳐든 아침 햇살의 서늘한 기운을 깨닫고 파닥거리는 노란 촛불을 끄지 않았을까?

그의 고독한 밤을 위무한 것은 한 잔의 포도주였다. 그러나 술잔은 쓰러졌다. 누군들 자신을 남김없이 비우고 쓰러지지 않으리. 혹은 지난날의 아름다운 설렘을 이기지 못해 때때로 회중 시계의 동그란 뚜껑을 열고 시간의 궤적을 들여다봤을 수도 있다. 시간은 흘러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 인간의 유한한, 그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삶도 뾰족한 화살로 사방을 겨냥하는 시계의 표징과 그리 다르지 않다.

전도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전도서의 설교자는 일찍이 향락에 몸을 담갔으나 헛됐고, 포도주와 여인의 향기에 몸을 적셨으나 헛됐다고 고백한다. 하늘 아래 온갖 지혜를 쓸어담았으나 그것도 헛됐다. 구부러진 것을 펴 수 없었고, 넘어진 것을 세울 수 없었으며, 없는 것을 헤아릴 수는 더더욱 없었다. 지나간 날이 기억에서 사라지듯 오는 세월도 기억에서 사라

삶의 덧없음 비유한 침묵의 수사학

피터 클라츠가 그린 <죽음과 책>

노성두 | 미술평론가

피터 클라츠의 정물화는 새 책과 낡은 책, 펼친 책과 덮은 책, 세운 책과 누운 책의 은밀한 비유를 통해 죽음의 깊이를 드러낸다. 턱뼈가 달아난 해골에서 알 수 있듯 죽음은 침묵의 수사법이다. 이 수사법은 우리에게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의 구절을 환기시킨다.

지고 말 것을 아는 설교자의 이마에 지울 수 없는 시름이 어리었다. 설교자는 누구인가?

세상사의 무심한 사연 답아

열린 책과 닫힌 책, 책을 누르고 승리하는 죽음, 자신의 몫을 다하고 었어진 술잔과 온기를 여윈 촛대, 시간을 채우고 마침내 멈추어 선 시계 등은 한낱 스치는 비유의 바람일 뿐이다. 삶에 미련을 두는 것은 이처럼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세상의 무심한 사연들이 모두 탁자 위에 모였다. 차가운 청회색의 납작한 돌판이 탁자를 마련했다. 반듯하게 잘라둔 돌판은 기실 무엇을 올려두는 탁자가 아니라 석관의 덮개로 적당하다. 어린 아이의 이쁜 주검을 가두는 조그마한 석관에 맞춤으로 소용됐을 것이다. 석관 이마에 이런 글이 써어져 있다. 화가가 붓을 여미어 새겨둔 소슬한 경구다.

“술잔이 비었다. 시간이 다 됐다. 촛불이 꺼졌다. 인간은 말이 없다.”

능변을 자랑하던 인간의 세 치 혀는 턱뼈와 더불어 사라졌다. 그러나 죽음은 침묵의 수사로 웅변한다. 또 죽음은 밝은 눈빛으로 빛을 마주본다.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다. ●